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00 굿모닝! 채널A 1~2부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00 생활송 김성주의 모닝카페	25 TV50년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특집다큐 <휴먼로드 지구촌 사람들 5부>	40 아침연속극 <태양의 신부>
[9]	10 여행이 좋다 40 그 여자 그 남자 스페셜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40 여유만만	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날	10 좋은 아침
[10]	50 이산가족 공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00 여성공간 55 바른말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00 MBC 여성토론 위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채널 A 뉴스와 경제 20 개그시대(재)	00 KBS 뉴스 12	10 월화드라마 <브레인>(재)	00 MBC 뉴스 15 장애인 희망프로젝트 <함께하는 세상>	00 SBS 12뉴스 30 결산 2011 KBC 열린토론회 4부 <2011 우리는>(재)
[1]	30 다섯남자의 맛있는 파티	00 스카우트(재) 55 바른말 고운말(재)		05 통일전망대 45 지구촌 리포트(재)	30 엄미랑 아빠랑 지구한바퀴
[2]	30 보이는 특강	00 KBS 뉴스 10 연경기획 여성 아카데미	30 체험! 삶의 현장(재)	10 시추에이션 휴먼다큐 그날 스페셜 55 MBC 네트워크 특선 <갑자, 석랑위기에 맞서다>	30 SBS 뉴스 4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30 여행이 좋다(재)	10 콘서트 필2(재)	00 2011 아시아 고교 야구 최강전 <대한민국 vs 일본>	50 MBC 뉴스	10 우리아이기가 달라졌어요(재)
[4]	00 채널 A 다크스페셜	00 KBS 오늘의 경제 10 한경직 목사의 <아름다운 빈 손>(재)		00 뽀빠뽀 아이조아 30 외라! 편의점	00 매일얼마 30 휴먼다큐 나눔
[5]	00 박종친의 시사토크 <쾌도난파>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30 사랑의 가족	00 MBC플러스 특선 <테스토프 24시>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네포트(재)
[6]	00 채널 A 뉴스 네트워크 20 음악들의 국가대표(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6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1~2부	00 6시 뉴스 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7]	20 너는 내 운명 40 불멸의 국가대표(재)	00 KBS 뉴스7 30 우리말 겨루기	45 TV50년 기획 스타 인생극장 <김용립 가족>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 딸 꽃님이>
[8]	50 컬러 오브 무언	25 일일연속극 <당신 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위기탈출 넘버원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이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송년특집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55 월화 드라마 <브레인>	55 MBC참사50주년 특별기획 <빛과 그림자>	55 뿌리깊은 나무 해례본
[10]	00 뉴스A 50 천상의 화원 공배령	00 송년기획 가요무대			
[11]		00 KBS 뉴스타임 40 집권인더뷰 이. 사. 람.	0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특집 다크 송공시대! <글로벌 코리아 1부>	15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12]	00 뉴스&스포츠 20 불멸의 국가대표(재) ①:30 박종친의 시사토크 <쾌도난파>(재)	25 KBS 뉴스 35 KBS 특선 <지구라는 이름의 기계>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특강	25 MBC 뉴스 24 35 스포츠 특선 <F1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50 나이트라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6일(음 12월 2일 乙卯)

 子	36년생 마음을 넓게 쓰면 풍요로워 질 것이다. 48년생 전환기의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하리라. 60년생 잘못이 있거든 용서를 구하자. 72년생 모양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니니라. 84년생 존제 하지만 부존제 하는 것처럼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 30, 41
 丑	37년생 오보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49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61년생 변화무쌍한 상황을 예리하게 판단해야 하리라. 73년생 거품을 제거하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다. 85년생 감추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행운의 숫자 : 49, 55
 寅	38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안정 궤도로 이를 것이다. 50년생 밖에서 쓸모없는 것이 안에서서 요긴하게 쓰이리라. 62년생 자기 일에 몰입하라. 74년생 남들이 다 차지하고 난 뒤에 부스러기만 갖는 형상이다. 행운의 숫자 : 66, 21
 卯	39년생 유혹에서 벗어나 재산을 보전하라. 51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의욕이 저하되리라. 63년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포용심을 보여라. 75년생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0, 76
 辰	40년생 수천노의 돈은 그가 땅에 들어갈 때에 자유로워짐을 알라. 52년생 자신과 타인의 근본은 같은 법이다. 64년생 참아 내야 하느니라. 76년생 깊은 사유를 통해 진정한 자비를 찾으려는 명상을 해보자. 행운의 숫자 : 70, 41
 巳	41년생 구색을 다 맞추다 보면 큰일을 도모하기 힘든 법이다. 53년생 차별화된 전략으로 매진하면 성공하리라. 65년생 세파에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밀어붙여라. 77년생 길흉이 교차하니 마음을 비워라. 행운의 숫자 : 40, 61
 午	42년생 막연한 걱정과 구체적인 대비는 다르니라. 54년생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빨리 해 버려라. 66년생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고역스럽다. 78년생 운명 앞에 순순히 무릎 꿇고 호방한 기상으로 응전하라. 행운의 숫자 : 75, 11
 未	43년생 재물 자람을 하지 말라. 55년생 같은 조건이라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라. 67년생 조금만 더 보류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에 접하게 되리라. 79년생 한때 지키지 못했던 의리를 만회할 기회가 있다. 행운의 숫자 : 54, 85
 申	44년생 확인하는 습관으로 인해 큰 화를 면하게라. 56년생 주변 환경만 따지지 말고 적응하고자 노력해 보라. 68년생 생각해 보고 진행하라. 80년생 낡은 것은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될 것이니 교체하라. 행운의 숫자 : 20, 96
 酉	45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57년생 원만한 근린관계의 형성은 삶의 기본 자세이다. 69년생 써줄 가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겨도 진 것이니라. 81년생 사회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된다. 행운의 숫자 : 81, 31
 戌	46년생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해 반목할 이유가 없다. 58년생 생산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한다. 70년생 만남의 소중함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82년생 공과 사를 구분하는 역할과 입장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62, 91
 亥	47년생 결벽증을 보이다 보면 많은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 59년생 자신의 일에만 충실 하라. 71년생 여행을 삼가지 않으면 신고를 당한다. 83년생 실제로 사람을 겪어 보지 않고서는 평가할 수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8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배우 안내상 “밈상 연기가 재미있어요”

배우 안내상은 지난 몇 년간 숨 가쁘게 달렸다. 지난 2007년 SBS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KBS 2TV ‘수상한 삼형제’와 ‘성균관 스캔들’ MBC ‘로열패밀리’에 이어 화제의 시트콤 MBC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주연까지 꿰차며 존재감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출연작 대부분은 ‘밈상 캐릭터’까지 선사했다. ‘조강지처 클럽’에서 아내를 배신하는 원수 역으로 ‘국민 밈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었고 ‘수상한 삼형제’에서는 이기적인 장남 연기로 시청자의 미움을 사더니 ‘로열패밀리’에서는 비열한 재벌가 장남으로 다시 한번 ‘밈상 연기’를 선보였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에서도 그는 마냥 곱게 보기 어려운 가장 안내상을 연기한다.

빳빳이에 쫓기는 신세가 됐지만 여전히 가족에게 큰소리치고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내상의 모습을 보면 짜증이 앞선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가장의 면모가 보일 때면 애잔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안내상은 “미움 사는 역할이 재미있다. 자극적인 역할을 맡을 때 특유의 쾌감이 있다”고 한다. “위낙 욕을 많이 먹어봤고 그런 욕은 의미도 없는 것”이란다.

“성균관 스캔들”의 정약용 역할도 좋았지만 제 성향상 무게 있는 역할보다 방방 뛰는 캐릭터가 재미있어요. 제가 원래 날뛰며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못했을 땐 못하는 티가 확실하게 나고 잘하면 잘하는 게 확실하 보이는 캐릭터랑 ‘노는 게’ 즐거워요.”

극중 안내상은 그야말로 ‘에너지이저’다. 사업자금을 마련하겠다고 24시간 아르바이트를 뛰다 몸져눕고 마라톤 대회에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나홀로 마라톤을 계속한다. 재기하겠다면서 사고만 치고 가족에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는 모습은 히스테리 환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배우 안내상은 이 ‘필치 아픈’ 캐릭터와 지난 4개월을 함께 했다. 일주일 주 5회 방송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역할이라 지칠 법도 했지만 그에게서 피곤한 기색을 찾기는 힘들었다. 힘들지 않냐고 물었더니 “힘들지만 기분 좋다”고 웃는다.



10%대 초반의 시청률에도 “만족한다”며 “볼 사람은 다 보더라. 시청률 많이 나온다고 돈 더 받는 것도 아니고(웃음)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연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 연예대상 ‘1박2일’ 수상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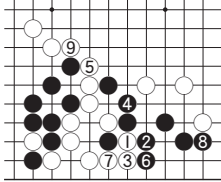
KBS가 올해 연예대상을 후보에 없던 ‘해피선데이-1박2일’팀에 안가자 논란이 일고 있다.

KBS는 지난 24일 열린 시상식에서 ‘1박2일’팀 전체에게 대상을 수여했다. 미리 발표된 대상 후보에는 ‘1박2일’의 이승기를 포함해 개인 5명만 올라 있었다. 후보에 없던 팀에게 대상을 안긴 데다 이례

적으로 개인이 아닌 팀을 수상자로 선정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연예대상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1박2일’팀이 대상을 받을 만하지만 후보에도 없던 팀에 상을 주는 건 말도 안 된다”, “수상자를 급하게 바꾼 티가 많이 난다”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이적수가 되고만 무심의 일착



<참고도>

그런데 흑이 73로 갈라왔을 때 백 74로 찢힌 수가 무심의 일착으로 흑을 도와준 대역수가 되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끊을 찬스로 그려낸 흑 2로 물고 4로 늘여야 하는데 백 5로 나가는 것이 선수가 된다. 흑은 8로 막아 살 수밖에 없는데 백 9로 막으면 완벽하게 수습에 성공한 모습이다.

실전은 흑 75로 잇게해서 74가 이적수가 되었고 바깥도 갈라져서 어수선 하다. 순식간에 주도권이 흑의 손아귀에 들어간 형국이다.

조영배 5단은 뒤늦게 백 80으로 늘어서 버렸으나 흑 81이 빼아픈 공격이며 공격의 효과로 ‘가’로 끊는 수를 남기는 등 흑이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 앞전에 댔던 격으로 흑 93이 통렬한 두움머리다.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What will happen if I do? 제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中原逐鹿(중원축록) 가운데 중, 언덕·근원 원, 쫓을 축, 사슴 록	頭髮長, 見識短 머리가 길면 생각은?	こうつうしこ 交通事故で、電車が遅れたんです。 교통사고로 전차가 늦었어요
A : Don't pull the dog's tail. B : Why? What will happen if I do? A : If you pull his tail, he will bite you. B : No, He won't. I pulled out all his teeth this morning.	중원축록(中原逐鹿)은 넓은 들과 한가운데서 사슴을 쫓는다는 뜻으로, 군웅이 제왕의 지위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중원을 천하에, 사슴을 제왕의 지위에 비유하였다. 한(漢)나라 고조 때, 한신이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죽으면서 ‘괴통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분하다.’라고 했다. 이에 고조의 앞으로 끌려온 괴통이 말했다. “그때 한신이 나의 말을 들었으면, 오늘날 폐하의 힘으로도 어찌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조가 격노하여 괴통을 삶아 죽이려 하자 괴통이 억울하다며 말했다. “진(秦)나라가 사슴을 잃음으로써 천하가 모두 이것을 쫓았습니다. 그 중 키 크고 발 빠른 절뚝이 이것을 잡았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폐하처럼 천하를 노린 자는 많았습니다. 모두 힘이 모자라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하가 평정된 지금 난세에 폐하와 마찬가지로 천하를 노렸다 해서 삶아 죽이려 하신다면 이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긴데, 생각은 짧다’라는 의미로 남성 대비 여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이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마저 박탈되었을 때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대부분을 남성들이 맡았을 때 나왔던 이야기이지요. 요즘에 이런 말하면 큰일나죠. 한층 더나가 요즘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더라구요. ‘頭髮短, 見識也短 - 머릿도 짧은 게, 아는 것도 짧다.’ 남성여성 비교되는 성별 우월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이 있을 뿐이죠. 성별 혹은 민족 간, 국가 간의 특수성을 우열에 대입하여 집단적인 가족행위가 주고 받아진다면 마땅히 깨뜨려야할 잘못된 생각이고 행동입니다.	A : 先生、遅くなってすみません。 B : どうしたんですか。 A : 交通事故で、電車が遅れたんです。 B : この頃は事故が多いですね。気を付けましょう。 A :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B : 무슨 일 있었어요. A : 교통사고로 전차가 늦었습니다. B : 요즘은 사고가 많군요. 주의합시다.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